

다니엘의 책 - 번호 육십구

세대적 순환의 베일을 벗기다: 재림주의의 네 가지 가증한 것

Jeff Pippenger

2024-02-02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므로 재림주의는 그 네 번째 세대에 심판을 받는다.

그가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베포 입을 사람을 부르시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 성읍의 한가운데,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로 지나가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또 내가 듣는 데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을 통과하며 치라. 너희 눈이 아끼지 말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진멸하되, 그러나 표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가까이 하지 말고,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들이 이에 성전 앞에 있던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성소의 속죄소를 떠나 보복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에 응답하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으로 그분의 진노를 쏟아 부으려 하신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시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데에 완전히 기울어진다." 주께서 그들을 향해 베푸신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마음이 누그러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오히려 마음을 더욱 굳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들은 은혜의 한계를 넘어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여 자신의 명예를 옹호하셔야 한다.

"아모리 족속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대가 지나 그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음이라' 하셨다. 이 민족은 우상숭배와 부패로 두드러졌지만, 그 죄악의 잔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었다. 자비로우신 창조주는 사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죄악을 참아 주고자 하셨다. 그리고 그때에도 더 나아지는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그분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여전히 모든 민족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고 계신다. 그분의 자비가 회개하라는 호소와 함께 베풀어지는 동안 이 장부는 열려 있겠지만, 수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한 한계에 이르면 그분의 진노의 사역이 시작된다. 장부는 닫힌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친다. 그들을 위한 자비의 간구는 더 이상 없다.

예언자는 세월을 굽어보며, 바로 이 때가 그의 환상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이 시대의 나라들은 전례 없는 자비를 받아 왔다. 하늘의 가장 귀한 복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나, 더욱 커진 교만과 탐욕, 우상숭배, 하나님에 대한 멸시, 그리고 지독한 배은망덕이 그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을 속히 마쳐 가고 있다.

그러나 나를 떨게 하는 것은, 가장 큰 빛과 특권을 누렸던 이들마저 만연한 죄악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들 주위의 불의한 자들의 영향으로,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식어 버리고 악의 거센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다. 참된 경건과 거룩함에 피부어지는 만연한 조롱과 멸시는 하나님과 긴밀히 연합하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그의 율법에 대한 경외심을 잃게 한다. 그들이 빛을 따르고 마음에서 우러나 진리를 순종한다면, 이처럼 멸시되고 제쳐질수록 이 거룩한 율법은 그들에게 더욱 귀하게 여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더욱 드러날수록,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세상 사이의 경계선은 한층 더 뚜렷해진다. 다른 한 부류에서 그것들에 대한 경멸이 커질수록, 한 부류에서는 그 신성한 법도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진다.

위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급속히 불어나고 있는 수치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거의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징벌하기를 꺼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징벌하실 것이며, 그것도 속히 하실 것이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다가오는 위험의 징조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조용히 앉아 무관심하게 파멸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임을 깨달아야 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경건의 누룩은 아직 그 능력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 교회의 위험과 낙심이 가장 클 때, 빛 가운데 서 있는 작은 무리는 이 땅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것들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그들의 기도는 더욱 간절히 드러질 것이다.

이 신실한 소수의 간절한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원수 갚는 분으로 나타나실 때, 그분은 또한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며 세상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켜 온 모든 이들의 보호자로 오실 것이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에게 오래 참아 오셨을지라도, 밤낮으로 그분께 부르짖는 자기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명령은 이러하다: '그 성읍의 한가운데,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이렇게 탄식하고 울부짖는 이들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왔다. 그들은 책망하고 권고하며 간청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던 이들 가운데 일부는 회개하여 그분 앞에서 마음을 낮추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은 이스라엘에서 떠나 있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계속했지만, 그분의 능력과 임재는 없었다. 증언, 5권, 207-210쪽.

그 구절에서 화잇 자매가 지적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시는 예루살렘 성읍에 내린 심판이며, 그 예루살렘은 말세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가리킨다. 심판은 일요 법령 때 최종 확정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인이 인쳐지고 짐승의 표가 새겨지기 때문이다. 에스겔 8장은 점차 심화되는 네 가지 가증한 일을 지적한다. 첫 절은 제6년 6월 5일을 지목함으로써 그 환상이 은혜의 문이 닫히기 직전에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에스겔은 그 역사적 참조점에 대한 언급을 굳이 포함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단순히 이렇게 썼어도 되었을 것이다. "내가 내 집에 앉아 있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을 때, 거기서 주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였다." 그가 '666'의 전날을 가리키는 언급을 포함했다는 사실은, 예언을 연구하는 이들을 위한 예언적 표지다. 짐승의 이름의 수에 대해 승리를 얻은 자들은, '666'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한 요소이며, 그 계시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린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이것을 안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대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은 "주께서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맛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거부한 자들과 달리,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다. 모든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 말하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장에서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기를 거부한 제자들은 66절에서 그렇게 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뒤로 물러가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요한복음 6:66.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지혜로운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팔모니로서 놀라운 수를 세시는 이심을 이해하며, 그것이 제시될 때 그분의 서명을 알아본다. 에스겔서 8장 첫 구절에 있는 "665"라는 수는 보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그 수가 최소한 두 가지 중요한 예언적 요점을 지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첫째, 그 기별은 일요일 법 이전의 한 기간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666"이라는 수는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자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특징지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단 두 구절 가운데 하나에 있다.

지혜가 여기 있다.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이는 사람의 수이니, 그 수는 육백육십육이라. 요한계시록 13:18.

말세에 지식의 증가를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이 풀릴 때 '666'이 중요한 예언적 상징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 수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8장에서 네 가지 점증하는 가증한 일들로 나타나는, 고조되는 반역을 소개한다. 마지막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태양에게 절하는 것으로 그들을 드러내며, 따라서 말세에 예루살렘(재림주의)에 대한 심판을 표징한다. 그 심판은 네 번째 세대에 일어난다. 이 네 가지 가증한 일은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네 세대를 상징한다.

첫 세대는 1863년에 '일곱 번'이라는 모세의 맹세에 대한 반역과 함께 시작되었다. 25년 후, 1888년의 반역이 나타났다. 31년 뒤에는 W. W. 프레스콧의 저서 '그리스도의 교리'로 대표되는 1919년의 반역이 일어났다. 그로부터 38년 뒤인 1957년에는 '교리에 관한 질문'이라는 책으로 대표되는 반역이 일어났다. 이제 우리는 이 네 가지 이정표가 에스겔 8장의 네 가지 가증한 것들과 왜 일치하는지 보여 주기 시작할 것이다.

1863년에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하박국 2장의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하라"는 명령의 성취였던 두 개의 도표를 대체할 새로운 도표를 도입했다. 1863년 도표는 예언적 도해에서 "일곱 때"를 삭제했는데, 이는 1260, 1290, 1335와 함께 두 개의 신성한 도표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박국에서는 그 명령이 그 판들(복수)이 “읽는 자가 그것을 읽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게시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1863년 도표는 너무 빛나가 있어서, 그것과 함께 설명 유인물이 필요했다. 추가 유인물 없이 1863년 도표만 보고서는 “달려갈” 수 없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분명히 새기되, 읽는 자가 달릴 수 있도록 하라. 하박국 2:2.

1863년 도표는 윌리엄 밀러가 꿈에서 본 그대로, 진리를 가리기 위해 고안된 위조물이었다. 두 개의 거룩한 도표는 땅의 짐승의 참된 개신교 뿔이라는 입장을 막 취한 백성과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언약의 상징이었다. 그 두 도표는 1844년에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신, 곧 언약의 사자로 오신 그리스도와 밀러파 사이의 언약적 관계의 표상이었다. 고대 이스라엘은 현대 이스라엘을 예증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끌어 내셨을 때 그것은 그분이 현대 이스라엘을 교황권 통치 1,260년의 속박에서 이끌어 내실 때를 예표한 것이었다. 화이트 자매는 이 두 역사를 평행한 역사로 거듭 지지한다.

“지나간 시대들의 축적된 빛이 우리 위에 비치고 있다. 이스라엘의 망각에 대한 기록은 우리의 계몽을 위하여 보존되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한 백성을 자신에게로 모으시기 위하여 그분의 손을 펴셨다. 재림 운동 가운데서 그분은 자신의 기업을 위하여 역사하셨으니,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신 것과 같다. 1844년의 대실망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의 믿음은, 홍해에서 히브리인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았던 것과 같이, 시험을 받았다.” Testimonies, volume 8, 115, 116.

주께서 고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분은 그 언약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두 돌판을 주셨다. 주께서 현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그분은 그 언약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두 판을 주셨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박국의 두 판을 예표한다. 그분은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 그 두 판을 주셨는데, 이를 화이트 자매는 1844년의 대실망과 대응시킨다. 예언사적 관점에서 1844년 직후에 주께서 둘째 판을 내놓으셨다.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가 되었고, 현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뿐 아니라 그 위대한 예언적 진리들의 보관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분의 교회를 세상에서 빛으로 서도록 부르셨다. 진리의 강력한 썰기, 곧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로, 그분은 그들을 교회들과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자신께 거룩히 가까이 나아오게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자신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시고,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예언의 진리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맡겨졌던 거룩한 신탁들과 같이, 이것들은 세상에 전해야 할 거룩한 위탁이다.” 증언, 5권, 455쪽.

첫째와 둘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미워하심을 드러내며, 그 두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이 삼사 대까지 미친다고 밝히신다.

율법은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유익만을 위해 선포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율법의 수호자이자 보관자로 삼으심으로써 그들을 영예롭게 하셨지만,

그 율법은 온 세상을 위한 거룩한 신탁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것이었다. 십계명의 규범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도록 마련된 것이며,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다스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열 가지 계명은 사람이 하나님께와 이웃에게 져야 할 의무를 망라하며, 그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위대한 근본 원리에 기초해 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27. 또한 신명기 6:4, 5; 레위기 19:18을 참조하라. 십계명에서는 이러한 원리들이 상세히 구현되어, 인간의 상태와 형편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호와와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피조되지 아니하신 분으로서, 친히 만물의 근원이요 보존자이시니, 오직 그분만이 지극한 경외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인간은 자신의 애정과 섬김에 있어 다른 어떤 대상에게도 첫자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약화시키거나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섬김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을 우리는 우상으로 삼는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둘째 계명은 형상이나 유사물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한다. 많은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의 형상들이 신을 예배하기 위한 단순한 형상이나 상징에 불합하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죄라고 선언하셨다. 영원하신 분을 물질적 사물로 표현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념을 낮춘다. 여호와와 무한한 완전함에서 마음이 돌아서면, 창조주보다 피조물에 더 끌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념이 낮아질수록, 사람도 그만큼 타락하게 된다.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친밀하고 거룩한 관계는 결혼이라는 비유로 표현된다.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므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노하심은 적절히 질투라고 불린다. 족장들과 선지자들, 305, 306.

하나님의 질투는 우상숭배에 맞서 특히 드러나며, 에스겔 8장에서 첫 번째 가증한 것이 "질투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제6년 제6월 그 달 5일에, 내가 집에 앉아 있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을 때, 거기에서 주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내 위에 임하였더라. 내가 보니, 보라, 불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는데, 그의 허리 아래로는 불 같았고, 그의 허리 위로는 광채의 모양, 호박 같은 빛깔 같았더라. 그가 손의 형상을 내밀어 내 머리털 한 술을 붙잡으시매, 영이 나를 들어 땅과 하늘 사이로 올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예루살렘으로, 북쪽을 향한 안쪽 문 어귀에 이르게 하였는데, 거기서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의 자리가 있더라. 보라, 내가 평지에서 보았던 그 환상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북쪽을 향하여 네 눈을 들어라 하시므로, 내가 북쪽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북쪽 제단의 문 어귀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에스겔 8:1-5.

질투의 형상은 에스겔이 본 네 가지 점점 심해지는 가증한 것들 가운데 첫째이다. 질투의 형상은 재림주의 안에서 점증하는 반역의 네 세대 중 첫 번째 세대의 시작을 나타낸다. 첫 번째 세대는 1863년에 시작되었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옛 선지자들은 각기 자기 시대보다 우리의 시대를 위하여 더 많이 말하였으므로, 그들의 예언은 우리를 위하여 효력을 지닌다. ‘그들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11.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12...”

“성경은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하여 그 보화들을 축적하여 함께 묶어 두었다. 구약 성경 역사에 나타난 모든 중대한 사건들과 엄숙한 행적들은 이 마지막 날들에 교회 안에서 반복되어 왔고, 또한 반복되고 있다.” Selected Messages, book 3, 338, 339.